

노후의 주거복지서비스 요구에 대한 성별 차이

권 오 정(건국대학교 교수)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의 제반 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의 일환으로 노인의 주거문제를 다루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예비노인층이라 할 수 있는 50대를 대상으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면서 향후 이들이 노년기에 들어서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예비노인층은 향후 경제적, 신체적, 그리고 사회적 욕구 측면에서 자신의 기호에 맞는 노인전용주택에 거주하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수년 동안 노후를 위한 다양한 주거대안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본 발표논문에서처럼 노인주택에서의 서비스문제를 특히 성별의 차이에 중점을 두어 수행된 연구가 없어 본 논문의 의의가 크다고 보여 진다.

본인의 개인적 연구경험과 다른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서 노인전용주택의 주거환경을 효과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노인의 생활에 질이나 주거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인주거의 성공적인 운영은 물리적 환경측면, 사회적 환경측면, 운영적 측면의 세 측면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 노인들이 노인전용주택에 이주한 이후에 ‘이곳이 내가 사는 집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데는 물리적 환경 측면보다도 오히려 직원들이나 다른 입주민들과 이루어지는 관계 즉, 사회적 환경 측면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주택에서의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수준과 자세가 노인전용주택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분석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노인주거복지 서비스의 내용에서 성별에 차이를 두어 특성화된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밝혔듯이 노인인구의 성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주로 여성노인이 선호하는 서비스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도의 평균점수가 13개 서비스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여성 노인들의 요구도가 더 높았다. 이는 어쩌면 여성과 남성이 서비스 요구에 대한 태도나 인식이 달라서 남성이 더 서비스 요구에 소극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발표논문에서는 주거복지서비스를 4개 유형 13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는데 앞으로 주거복지 서비스의 개념과 범주는 좀 더 연구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본 발표논문에서 다루어진 서비스 내용에 추가하여 교육서비스, 자원봉사서비스 등 유형을 확장하고 각 유형별로도 좀 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예를 들어, 상담서비스에서 자산관리 서비스, 각종 노후 생활정보 서비스, 미용서비스 등)에 대한 필요도를 조사한다면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성별의 차이를 좀 더 구체

적으로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구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노후의 주거대안으로 다양한 노인주택이 개발된다면 각 유형마다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후속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하드웨어적인 물리적 환경과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가 잘 조화를 이루는 노인주거가 공급되고 활성화되길 기대해본다.